

갤러리 색즉시공



꽃들이 답을 한다

산다는 것은 답을 하는 것
간밤에 산중의 선사가 불현듯 답을 하고
오늘은 꽃들이 답을 한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은
이유가 있는 모든 것들의 당연한 것을

내일 깊어진 하늘이 답을 하고나면
계절이 또 한 번 답을 할 텐데
산중의 선사가 좌복을 벗고
도량외의 구절초가 하얗게 지도록
여직 수수께끼인 것은 나쁜인 듯하다

오늘은 꽃들이 답을 한다

사진 · 글=박재완 기자

당신은 '후회없는 삶' 을 살고 있는가

Buddha in Comic & Ani

⑦ 데자키 오사무의 <내일의 죠>

한 남자가 있다. 애초 성격은 글러먹었고, 믿는 것은 두 주먹밖에 없는, 그래서 사각의 링 위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밖에 없던 '권투 바보' 다. 삶의 마지막 역시 자신이 가장 회의를 느꼈던 링 위에서 산화한다. "하얗게... 하얗게 제가 되도록 불태운 거야. 하얗게..."라는 대사를 남기고.

지금도 일본 스포츠 만화에서 압팩트 있는 작품을 꼽으려면 적지 않는 사람들이 <내일의 죠(국내명 도전자 허리케인)>를 회자한다. 원작인 만화도 수작이지만 개인적으로는 2011년 작고한 데자키 오사무가 연출 · 감독한 애니메이션 <내일의 죠>는 애니메이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수작(秀作)으로 평가한다.

사실 한창 경력을 쌓던 신인 감독인 데자키 오사무의 출세작이자 데뷔작도 바로 1970년 만든 '내일의 죠'다. 그 후 그는 <에이스를 노려라>, <보물섬>, <베르사유의 장미>까지 히트작을 내놓았고, 투과광 기법이나 하모니 기법 등 새로운 애니메이션 기법들을 만들기도 했다. 그만큼 데자키 오사무에게 <내일의 죠>는 자신의 청춘을 바친 역작이었고 그만큼 애착이 있던 작품이었다.

권투 바보의 이야기 <내일의 죠>의 스토리를 살펴

보자. 주인공 이부키 죠는 천에 고아로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그야말로 동네 양아치의 표본이다. 그러던 중 복싱 프로듀서인 단페이를 만나고 복싱을 접하게 된다. 그 후 라이벌 리키히시, 카를로스 등과 접전을 벌이면서 복서로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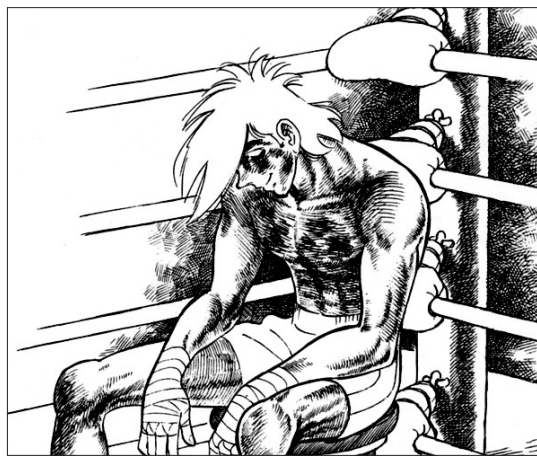
천재적인 머리와 실력으로 강호들을 하나 하나 격파하는 죠이지만 평생의 라이벌 리키히시 시합 이후에는(리키히시는 시합 후 사망) 사람의 얼굴을 때리지 못하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여기에 크로스

처절한 '사각의 링' 사투 속에 자신을 산화시킨 남자 이야기 "성공 떠나 오늘 살라" 화두 던져

카운터라는 필살기. 이로 인해 죠는 위력적 한방을 위해 수많은 펀치를 견뎌야 하는 제로섬 게임을 해야 했다.

작품의 마지막, 죠는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몸을 이끌고 호세 멘도사와 사각의 링에서 맞선다. 처절한 15라운드 사투의 결과는 죠의 패배, 그리고 죠는 죽음을 맞습니다.

마지막 대결 직전 만신창인 몸으로 연인에게 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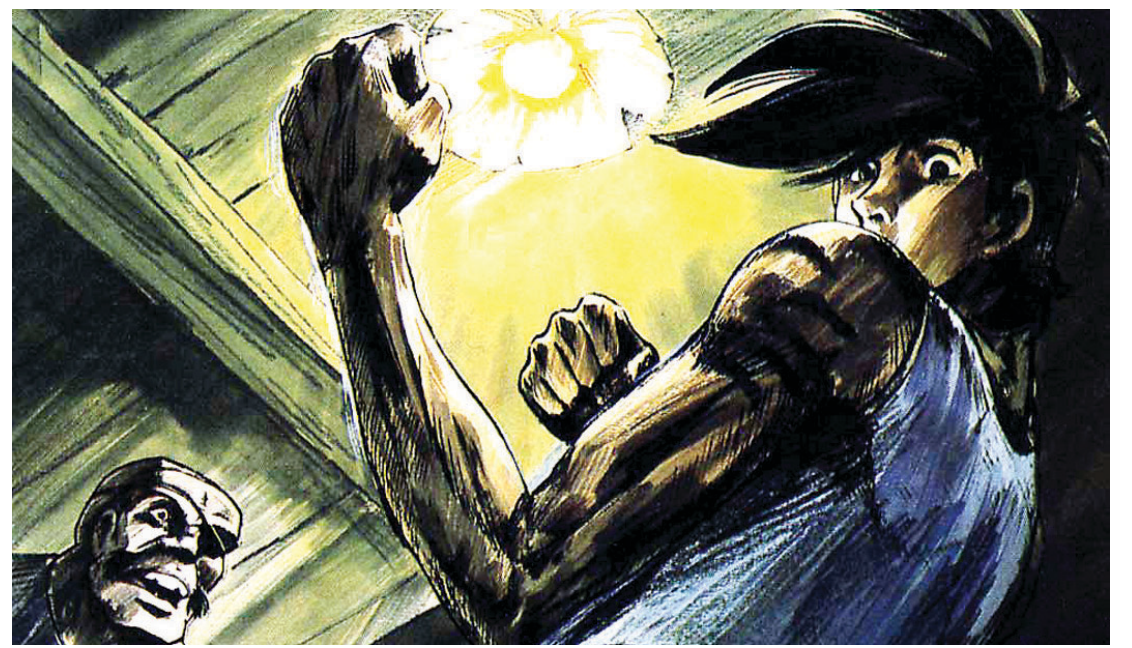
<내일의 죠>의 마지막 장면(사진왼쪽)과 일러스트(사진 오른쪽). 주인공 죠가 벌이는 사각의 링 사투에서 우리는 후회없는 삶을 살아가는 청춘을 만난다.

말한다. "껌대기만 타다 꺼져버리는 식으로 어썰픈 젊음은 보내지 않겠다"고. "한 순간이지만 새빨강게 타오르겠다"고.

이런 처절한 허구의 이야기가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것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마지막까지 관철시킨데 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죽은 죄에서 생기는 것인데 죽은 점점 죄를 먹는다."

살은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세상에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인생에 균살이 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의 균살'이라는 '죽'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알



아차리지도 못하게 하나 하나 좀 먹는다.

<내일의 죠>에서 보여지는 사각의 링은 인생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항상 우리는 인생에 맞서 싸운다. 그 안에서 무수한 펀치를 날리며 때리기도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승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다. 패배의 쓰라림도 마지막 공이 울릴 때까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공 이부키 죠는 승자로 기록되지 못했다. 승자와 패자라는 이분법적 성공 논리로 보자면 죠는 분명 패자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생에 충실했고, 사각의 링에서 자신을 완전 연소했다. 훗날라는

봄꽃이 짧지만 아름다운 것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 최선을 다해 꽃망울을 터뜨려서다. 이 작품은 인생의 균살이 불고 타성에 젖어 사는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여기, 후회없는 삶을 살고 있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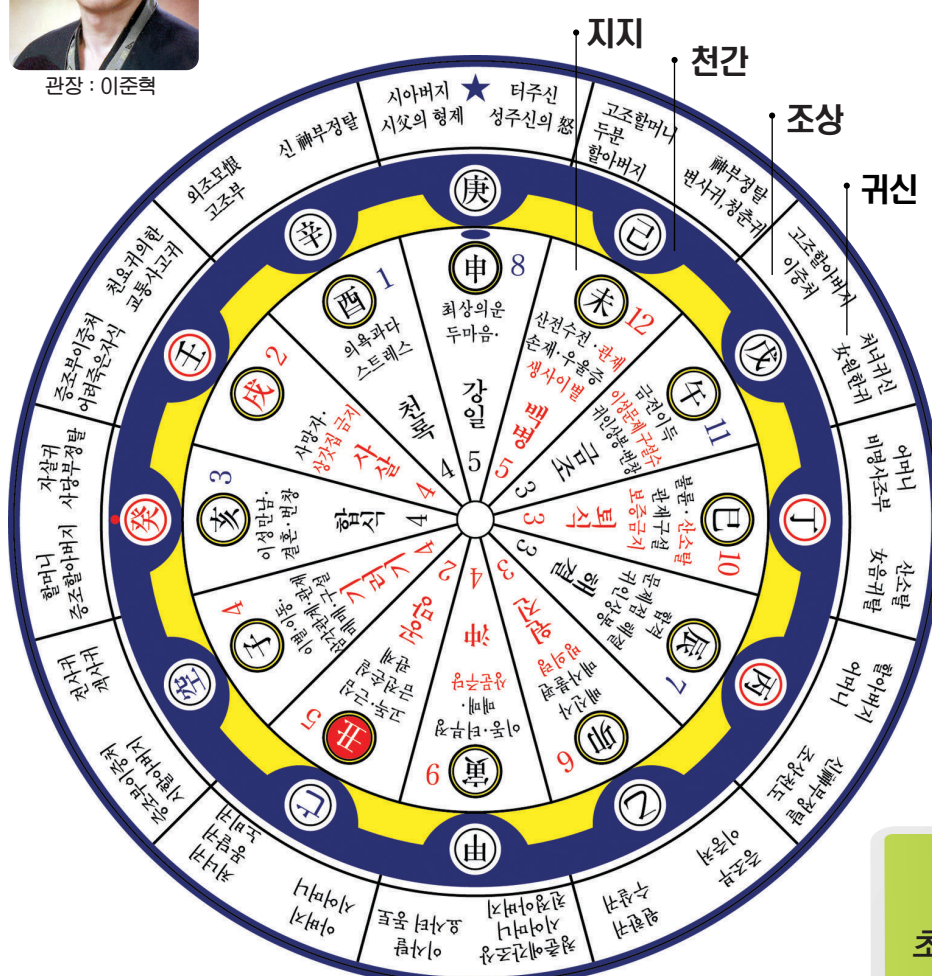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껌대기만 타다 꺼져버리는 식으로 어썰픈 젊음을 보내고 싶지 않아. 비록 한 순간일지언정, 눈부실 정도로 새빨강게 타오르는 거야. 미련없이 불태웠을 때 남는 건 하얀 잿가루 뿐이야. 최후의 순간까지 불태워 버려줘. 아무런 후회없이 말아야."

- <내일의 죠> 이부키 죠의 대사 중



백발백중귀장술 쉽게 보는 백문백답 회전원판, 내 손안의 귀장술입니다 (극비 도공술 추가 강의)



언제까지 손으로 짚어서 상담하시겠습니까?

- 1) 금일 일진만 맞추면 한눈에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庚申日 기준)
- 2) 굳이 손으로 짚을 필요가 없이 공망도 표시되므로 육상갑자를 외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3) 백발백중귀장술 원판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수작업으로 제작.
 - 원판크기 지름 15.5cm
 - 재질: PC
- 4) 초기원판 업데이트
 - 크기확대 보기 편함
 - 귀장 내용 추가

특허출원번호 : 30-0721929
※ 원판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제작 배포할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교육가능 합니다.

문의 : 010-8558-2345 / 02)2273-8557
주소 : 서울 강동구 천호동 406-9 금강빌딩 B-105호

계좌번호 : 신한 110-371-828252 (예금주: 이민희)
(5호선, 8호선 천호역 3번출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주)**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상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치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납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명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02)2004-8200